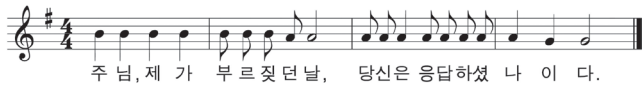


연중 제17주일

제1독서 창세기 18, 20~32

화답송 시편 138(137), 1과 2나, 2ㄱㄷ과 3, 6~7ㄴㄷ, 7ㄹ~8
(◎ 3가 참조)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1.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2.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3.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 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4.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십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콜로새서 2, 12~14

복음 환호송 로마 8, 15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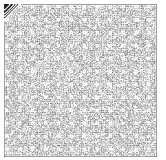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복음 루카 11, 1~13

영성체송 시편 103(102), 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민 병 국
요한 신부

청하고, 찾고, 두드려라.

신앙인들은 매일 매일을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매 순간 기도 드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오는 많은 일 속에서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세상의 일에 마음이 머물 때, 하느님보다는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집중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즉시 하느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가장 쉽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미사 때나 성당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일터에서, 즉 삶의 자리에서 잠시의 휴식과 같은 예수님과 짧은

은 만남입니다. 그 짧은 만남이 있기에 일상의 삶이 주님을 통해서 활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을 가진 가톨릭 신자로서 드리는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께 대한 가장 확실한 신앙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에서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놓는 것부터 기도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이 하느님께 향할 때 기도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느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을 청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그 청함을 들어주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청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하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든 올바르지 않은 것이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구할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루카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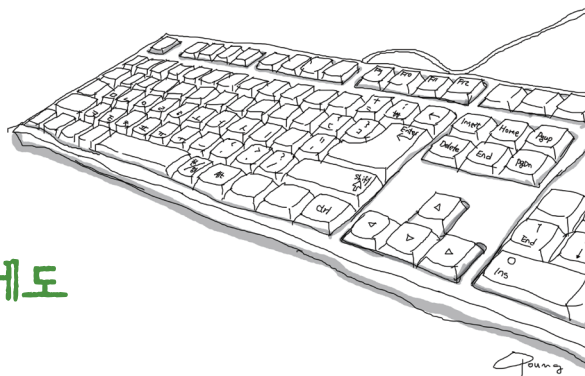
■ 못골성당 주임

지금 여기

그러나 그런 중에도

마감을 사흘 넘기고도 글이 풀리지 않아 딱 죽을 것 같았습니다.
두통약을 먹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힘든 게
다른 일 아닌 원고 쓰는 일이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일로 괴로운 건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은 학생이 공부 아닌 밥 버는 일로 고달픈, 그런 것입니다.
본업으로 힘겨운 건 그중 다행입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BBC부산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7.25(월)~26(화)

민병국 신부(못골성당 주임)

7.27(수)~30(토)

도기용 신부(동래성당 보좌)

문자참여 #2340

◆ 사랑이 있는 세상 ◆

월~목 12:15~14:00

7.26(화) 함께 하는 여성

(기초공동체 초대 토크 코너)

출연 : 장산성당 자부회

◆ 다정다감, 다섯시 ◆

월~금 17:05~18:00

7.26(화) '시인 농부의 민들레편지'

출연 : 시인 서정홍 안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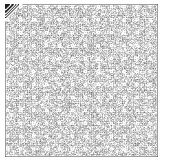
◆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

7.29(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영성의 집 제2부원장)

출연 : PAX

신앙의 신비



하 창 식 프란치스코

성실한 공무원이자 한 집안의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에 날벼락을 맞았던 사건이 새삼 생각납니다. 투신자살하던 한 젊은이에게 부딪혀 그만 안타깝게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젊은이 때문에 애먼 목숨을 잃은 그 가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런저런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동료 한 분은 건물 밖에 있는 다른 동료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쫓아 나오다가 현관 유리창에 부딪쳤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실명할 뻔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그 가장의 경우도 그렇고, 해외 여행 중에 그런 아찔한 사고를 당한 그 동료도 그렇고, 우리들이 일상 중에 가끔씩 겪는 불행한 우연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비자 교리를 공부할 때 가끔씩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의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별인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은 죄 없는 어린이들, 이른바 '묻지 마' 살인이나 테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이웃들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우연한 불행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어떨까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배워 익히게 된 가르침 중의 하나는 바로 '받아들임의 신비'가 아닌가 합니다. 신앙이 아예 없었을 때나 새내기 신자일 때엔 저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우연에 대해 모든 것을 운명으로 치부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하느님 구원의 역사를 머

리로 '이해' 하려고 애썼습니다.

미사에 참례하여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기도하며 성경과 신심서적을 읽는 세월이 더해 갈수록,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우연에 대한 원인을 따지려고 하기보다, 알고 있든, 생면부지이든, 이웃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제게 우연히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더 큰 불행이 아니라서 다행이고, 그런 불행한 우연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는 깨우침을 갖도록 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시나브로 깨달아 가는 이런 배움의 과정이 바로 신앙의 신비가 아닌가 합니다. ■ 수필가 csha@pnu.edu

환경과 생명 더불어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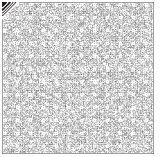
우리농 본부 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鄕愁)’ 1연의 한 구절입니다. 해설피, 곧 해가 질 무렵 저녁놀에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큰 소가 긴 울음을 우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 참으로 농촌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농사일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논과 밭의 흙을 갈아엎는 일에 한 몫을 하는 소가 젖소마냥 얼룩덜룩하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일제가 192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소를 누런색으로 통일시키고, 1970년대 한우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한우 개량 사업이라는 걸 펼치면서 누런색 소만 남았지만 그전까지는 소의 색깔이 다양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 시의 얼룩백이 황소는 충청도의 칙소로 그 명맥을 간신히 잇고 있지만 다양한 소는 어느새 소리소문없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에 기대어 살게 된 짐승이라도 그 다양성을 파괴하

는 것은 결코 건강한 일일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작물이 똑같은 색깔과 모습으로 광활한 들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채우는 것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대파 옆의 토마토’처럼 함께 어울릴 때, 대파 특유의 냄새로 토마토에 꼬이는 벌레를 막아주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토마토와 뿌리를 얇게 내리는 대파가 서로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지주를 세워 곧게 위로 자라는 토마토 곁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키 작은 대파가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고추와 들깨’, ‘참깨와 호박’처럼 서로의 존재만으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생명의 원리는 우리를 나 아닌 다른 이와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하느님 나라는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고도의 심리적인 진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때론 이처럼 농촌에서 펼쳐지는 창조적 신비 앞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읽고

최종민 마티아



천국의 열쇠... 우선 이 책의 주인공인 프랜시스 치점 신부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자신의 꿈을 찾아서 그 꿈 하나에 희망을 걸고 온갖 고통과 시련을 다 겪어 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상한 여인에게 입양돼 수난을 당하고, 주임 신부님과 마찰로 인한 힘든 보좌 신부님 생활, 전쟁에, 페스트에, 심지어는 이루어놓은 성당이 무너지기까지 했지만, 프랜시스는 꿈이라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견디고 또 견뎠다. 이 책을 다 읽고 이 책의 제목이 왜 천국의 열쇠인가 하고 한동안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다 문득 하나의 생각이 들었다. 프랜시스는 자신의 삶에서 꿈이라는 천국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견디고 또 견뎠던 것은 그 천국의 열쇠가 아닐까.

그리고 이 책의 저자 A. J. 크로

닌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자신을 프랜시스 치점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에 등장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 크로닌은 아마 프랜시스 치점 신부처럼 자존심 센 스코틀랜드 사람의 느낌이 아닐까? 또 크로닌은 이 책에 전쟁과 페스트를 등장시킨다. 크로닌은 그때 당시 유럽에서 일어나던 제1차 세계 대전 그리고 페스트의 처참함과 무서움을 우리 독자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마지막에 치점이 늙어서 성당 마당에 앉아 자신의 일기장을 읽는 장면이었다. 내가 읽은 다른 책에서 시간의 전개를 역으로 돌리면서 회상이란 것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일기장이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는 처음 보았고 정말 흥미로운 소재였

던 것 같다.

이 책은 3월부터 읽어서 지금까지 석 달 정도 읽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 책을 읽어 본 것은 처음이다. 물론 책을 잠날 때마다 읽어서 시간이 길어진 것도 있겠지만 한 권의 책을 오랜 시간 동안 읽는다는 것은 꽤 괜찮은 경험인 것 같다. 책을 읽다 보면 앞부분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성격상 앞부분을 다시 읽고 돌아온다. 그러다 보니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친구들에게 책의 줄거리를 거의 다 이야기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스토리가 기억이 났다.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였다.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이 책을 소개했다. 아버지도 책의 재미를 아시고 꽤 유명한 책인 지라 바로 읽어보겠다고 하셨다. 웬지 잊지 못할 나의 첫 번째 책이 될 것 같다. ■ 개금성당, 01



성당에 가면 늘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 삶이 그리 기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라 태생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이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서도 죽음 앞에서 꿈쩍도 할 수 없는 인간,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절망 속에 빠져 사는 인간, 자유와 해방을 바라면서도 결국 스스로를 속박하고 마는 인간, 평화를 갈구하지만 갈등과 반목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해방을 꿈꾸면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인간, 공동체를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함께 있으면 갈라져 싸우는 인간.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 갈등과 평화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사랑하면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교회는 고백합니다. 부활은 그 최종적 해답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용약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면서 아시아에 흩어진 신자공동체를 자주 격려하는 이유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mederico@cup.ac.kr

농민 주일 행사 -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생명의 식탁인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들은, 삶에서도 소비주의적 식탁, 상품화된 농산물이 아니라 가톨릭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가꾼 우리 농산물로 생명의 밥상을 차려야 한다.”

- 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장 김민한 신부의 미사 강론 중

많은 본당에서는 농민 주일 특강, 떡메치기 체험, 우리농산물로 만든 먹거리 나눔 및 판매, EM 발효액 나눔, 우리농산물 제대 꾸미기, 쌀지킴이 회원 모집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개금



사상



임호



반송



우정



무거



엄궁



하단



남산



올하



당감



대천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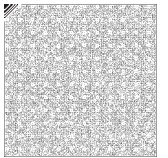
안락 직매장



자유대성



덕천



2018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집 및 피정
 · 7.30(토) 14:00~31(일) 13:00 · 양산 영성의 집
 대상 : 사제성소에 관심있는 현재 고2, 일반
 문의 : 629-8760(성소국)
 ※ 2018학년도 신학대학에 지원할 지방자는 반드시 이 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교구 혼인강좌 강사 초빙

지원자격 : 가톨릭신자와 심리학 전공자로서, 현재 전공분야 직업을 가진 분
 이력서접수 : 9.11(일)까지, family@catb.kr
 문의 : 629-8775

제3기 성모어머니학교

· 10.6~11.3 매주 목요일 10:00~15:00(5주 과정)
 · 교구청 5층 대강당 / 대상 : 초중고 자녀를 둔 어머니
 접수 : 8.16(화)~9.30(금), 선착순 49명
 문의 : 010-2202-0470, 010-8822-1993

제7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8~11.5 매주 토요일 15:00~21:00(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대상 : 초중고 자녀를 둔 아버지
 접수 : 8.16(화)~9.30(금), 선착순 49명
 문의 : 010-6408-6111, 010-3460-0696

부산교구 공원묘원 하늘공원

미사 : 매주 토요일 11:00 3층 경당(서틀버스 운행)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문의 : (055)374-8732~3(관리사무실)

2016년 기초공동체 복음화의 해

본당 기초공동체의 나눔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안내

착한목자의 집 (문의 : (052)286-6647)	부산가톨릭농아인복지회 주간보호센터 (문의 : 751-8693)		
산책, 운동 동행(성인 남자)	5명	월~토	노인체조(유경명자)
시설 보수 등(전기, 배관)	2명	비정기	하나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문의 : 634-3417)
평화주간보호센터 (문의 : (052)248-6161)	장애인 훈련 보조		
중증장애아동 프로그램 보조	2명	월~금	마리아마을 (문의 : 263-3902)
공동생활가정 푸른나래 (문의 : (055)388-5186)	한글교실(성인 이상)		
청소봉사	6명	평일	목욕봉사(성인 이상)
학습지도봉사(대학생)	2명	금	정서지원(말벗, 레크레이션)
점심식사 봉사	3명	주일	나들이 지원 물건 구입
오순절 평화의마을 (문의 : (055)352-4241)	식사준비 및 식사보조		
남·여 목욕봉사	10명	월~금	7명

부산가톨릭문인협회 제6회 문학캠프

주제 : 함께 걷는 길

일시 / 8.20(토) 10:00~16:50 (파견미사 포함)
 장소 / 신학원(부곡동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내)
 지도 : 정은귀 교수(한국외국어대, 시론, 김상원 소설가, 정경수 수필가, 정재분 동시인)
 신청 마감 : 7.31(일) / 참가비 : 2만원
 (부산 101-2027-4934-03 가톨릭문인협회 하창식)
 문의 : 010-6627-1070

주요 표지사진 공모

주제 : 해당 주일 전례(복음)를
 목상할 수 있는 사진

사진 규격 : 디지털 사진화일(JPG,RAW,TIF 등) 가로×세로 3000픽셀 이상 컬러 사진(출품수 제한 없음)
 접수 내용 : 디지털 사진(첨부),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해당 전례력, 성경구절, 사진설명(장소, 일시, 작품사연 등)
 응모 자격 : 부산교구 신자 누구나 / 접수 : 이메일(photo@catb.kr) ※ 교구 홈페이지(www.catholicusan.or.kr) 참조

<p>다양한 예물과 시계 각종 보석 도매, 목주반지 전문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p>	<p>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래를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p>	<p>since 1977 보이지 않는 보청기 디지털보청기 전문 취급 한독보청기 김무남(아우구스티노) 632-2248, 2360</p>	<p>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운(안토니오), 김정민(이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흉조·에스테틱</p>	<p>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가인방문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및 신청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 상시 모집 민 병 덕(요한) / 윤 승 신(보나) 914-5678, 010-7448-7858</p>	<p>금석·제이스 귀금속 도소매(각종 보석, 다양한 예물과 패션제품, 커플링, 목주반지 전문) 박정희(요셉), 손해경(요세파) 644-3630~1, 010-3558-3630 010-8661-3631 현대백화점 맞은편 귀금속 테마거리 중간 단독 매장</p>	<p>정성을 다하는 방문요양 성요셉재가노인복지센터 아픈 어르신들 보살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대표, 김 창 연(글리첼리오) 622-3277, 010-2887-3527</p>	<p>(주)KD기공 LG시스템에어컨 전문점 전기, 가스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 신축, 개축 냉난방 공조 설계, 제안 지원 627-4393</p>	<p>안평노인건강센터 치매·중풍 돌봄시설 장기요양기관 518-6838</p>

PBC부산평화방송 구성작가 구함
 원서 접수: 7.29(금)까지
 문의: 600-882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부산가톨릭생활성가협회
 회원, 찬양봉사자 모집
 분야: 보컬, 악기 / 자격: 생활성가를 좋아하는 분
 문의: 010-6553-2023, kimzh@hanmail.net

농아인선교회 8월 수화교실 개강
 기초, 중급반 개강: 8.9(화) 19:00 주 2회(화, 목)
 3개월 과정, 수강료: 5만원(교재비 별도)
 고급반 개강: 8.10(수) 19:00 주 1회(수)
 3개월 과정, 수강료: 7만원(교재비 별도)
 · 부산가톨릭농아인선교회, 복지회 2층
 * 수강 인원 5명 미만 시 폐강될 수도 있음
 문의: 751-8693, 010-7447-8314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6학년도 2학기 전문능력개발 및 자격증 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노인돌이심리상담사, 노인체육지도사, 다도, 리본아트코디네이터, 미술심리상담사, 색채심리상담사, 생활천그림아트(일반/전문가/최고지도자), 선물포장코디네이터,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영성심리상담사(심화), 전례와 사제예술
문화·교양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서양화(유화), 시(詩)작법, 우쿨렐레 초급과정, 캘리그라피, 필라테스, 홀리스틱 힐링요가
 접수: 8.1(월)~8.31(수)
 개강: 9.5(월)부터 과정별 해당요일
 문의: 510-0952~3, edu.cup.ac.kr

평화 여성의 전화 상담 및 쉼터
 월~일(24시간) 상담 가능 / 문의: 467-7897

 부산교구 News & Focus 유튜브 방송
가톨릭라이프부산
 www.catholicbusan.or.kr

- ▶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과 소식 - 가톨릭라이프부산)
- ▶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atholicbusan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463-7866
 상담: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박사) 및 전문상담사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464-3909
 ·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박성태 신부)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월요일, 금요일 14:00~15:30
 문의: 515-0030

교육 · 모집 · 기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7.26(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구속주회 신부 / 문의: 010-7132-6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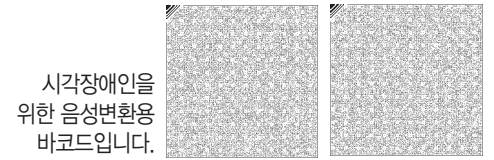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7.30(토) 11:00(범일성당 입구 김안과 09:00 출발)
 · 양산 무아의 집 / 문의: 010-3355-4997

엘리아와 함께하는 침묵 피정
 · 8.13(토)~15(월) / 대상: 35세 미만 미혼여성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문의: 010-9319-1690(루카 수녀)

밤중 성시간
 · 매주 목 23:00 · 우동성당 / 미사도구, 묵주 지참
 문의: 010-7124-0721(이시찬 신부)

울산유치원 졸업생을 찾습니다
 울산유치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졸업생을 찾습니다 / 문의: 010-4620-0125

남성 중증장애인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월~금 낮 시간의 남성 자원봉사자
 내용: 월 1회 이상 이동목욕 봉사
 문의: (052)243-1776(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중고생 살레시오(SS영성 리더십)교육(P과정)
 · 8.11(목), 12(금), 13(토) 09:30~16:30
 (단, 마지막날 12:00까지 / 부모님 초대)
 3과정수로 희망자 면접(VIDES 국제자원봉사 가입가능)
 문의: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집 남천동)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젊은이 여름피정캠프
 · 7.28(목)~30(토) / 대상: 만 30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010-9383-2754 / * 카페(cafe.daum.net/sgbp)에서 신청서 다운 후 메일로(pulmukum@hanmail.net) 접수하신 분들께 연락드립니다.

지리산 피아골피정집 여름가족피정
 · 7.29(금)~31(일), 8.5(금)~7(일)
 · 피아골피정집 / 문의: (061)782-5004
 내용: 가족단위의 삼과 피정

아씨시수녀들과 수도생활체험 피정
 · 8.13(토)~15(월) /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3만원 / 문의: 010-5313-0241(전 베로니카 수녀)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문의: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8.5~7, 8.26~28 시작 17:30
 8.8~12, 8.15~23, 9.5~9, 9.22~30 시작 14:00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기본 1과정 8.5~6 시작 15:00, 기본 1,2과정 8.12~14 시작 15:00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9.26(월)~10.8(토) · 발간 순례 13일 395만원
 · 10.24(화)~11.5(토) · 서유럽, 스페인 13일 (로마, 루르드, 산티아고, 판타마 405만원)
 국내선 포함, 독일항공 / 문의: 010-3837-643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입양 및 미혼모 상담(국내 입양 전문)
 문의: (02)764-4741~3, www.holyfac.or.kr

인간존중·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 (18)
 상담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회복지상담학과
 www.cup.ac.kr

메리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설
 대상: 말기 암환자 및
 통증·증상완화를 필요로 하는 환자
 문의: 461-2471(완화의료센터)

가톨릭선원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김정자 안나 성지순례 사진전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나다
 전시. 7.26(화)~31(일) 10:00~18:00
 장소.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문의: 462-1870 / www.bc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간병사(개인/공동)모집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재가기관(방문요양/목욕) 성별, 학력 제한없음 818-1004, 245-1004 (주)천사사람들</p>	<p>소화문 화사랑방 발효아카데미(막걸리,김치,된장,간장) 음식업 컨설팅(프랜차이즈) * 단체 예약 가능(30인) 최영숙(세실리아) * 매일정당 정민(뜻밖엔) 010-2860-8484</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상인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안서용,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임성엽, 박상욱 554-1088/동래저차철역 1번 출구 맞은편</p>	<p>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과: 박인호(루카), 한정문 소화기 내과: 최병택, 문재현, 유찬희 류마티스 내과: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검진: 주한나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p>
<p>모니카주단 혼수예단, 결혼예복 전문 황 위 식(레오) 김 필본(모니카)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152호(1층 4호문 중간)</p>	<p>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553-0050 추홍수(아고보) 광안: 751-1515 김명희(아네스)</p>	<p>오두중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오두중(요한) 805-0200 카톨릭상당 ID: 오두중성형외과 서면 주디스태화 맞은편 우리은행 5층</p>	<p>르노삼성자동차 신차구매 및 상담 (SM6, QM6, QM3, SM3, SM시리즈) 중고차처리, 폐차, 보험결격 비교 등 전화주시면, 기쁨과 만족을 드리도록 성심껏 보겠습니다. 이 건 기 (빈첸시오) 010-8502-7514</p>	<p>법무법인 센텀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행정 등 각종법률상담, 형사 불기소 처분 다수, 민사소송 승소 사례 다수 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912-0055, 010-7455-1031</p>